

## 디지털인쇄와 하드커버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인쇄되었는가?

하드커버(양장본) 도서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종이를 자르고, 결을 따라 접고, 구멍을 뚫고, 모아서 칠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접착제로 책의 등을 봉합하고 보드지로 된 결장을 붙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드커버 도서이다! 간단한 것 같다고? 그렇다. 그러나 하드커버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프린터가 가장 실행 가능한 인쇄 방법을 선택하는가? 어떤 방법이 이러한 도서에 가장 적합할까, 디지털 인쇄, 아니면 전통적인 오프셋 인쇄? 주문식 인쇄가 도입된 후 이 두 가지 선택에 대한 질문이 수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교실에서

우선, 디지털 인쇄는 하드커버 도서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몰턴 광고사(Morton Advertising) 사장인 돈 레이스필드(Don Feisfeld)에 따르면, 디지털 방식으로 인쇄되는 고등학교 연감(yearbook) 때문에 하드커버 도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한다. 엔투라지 연감(Entourage Yearbooks)과 익스프레스 프레스(Express Press)는 둘 다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주문식 연감(학교연감)을 제공한다. 엔투라지(Entourage)는 최소 주문량이 필요하지 않고,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고객맞춤형 연감을 주문하기가 편리하다고

한다. 또한, 이 사이트는 연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출판의 어려움 및 수요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고 있다.

익스프레스 프레스(Express Press)는 다양한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Expressly-Yours 연감을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1978년 이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소규모 인쇄와 관련된 그 당시 기술과 ITEC 종이 접시가 이 회사를 “고속 프린터”라는 별명을 갖게 했다.

“2000년, 우리는 다시 한 번 ‘고속 프린터’가 되기 위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레터헤드(letterhead, 서한양식 상단), 봉투, 멀티파트 형식(multipart form) 대신에 연감의 고속 프린터가 되었죠. 우리는 휴렛팩커드의 인디고(Indigo) 5 색 디지털 인쇄를 이용합니다”라고 설립자 밥 클라(Bob Clar)는 설명하였다. 디지털 인쇄 덕분에 이 회사는 학교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의 신속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전통적인 연감 출판의 인쇄 공정은 시간과 경비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 익스프레스 프레스 직원들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약 7주 안에 하드커버의 완벽한 연감을 만들어 낸다. 통상적으로, 전통적인 연감 출판사들은 5월 또는 6월에 배송하기 위해 1월부터 폐

이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디지털을 이용하면, 정보를 모으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예전에는 시간의 제약 상 간과되었던 정규수업 외의 활동이나 스포츠도 포함할 수 있다.

하드커버를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배송되는 익스프레스 프레스를 찾아내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터넷과 디지털 인쇄의 결합을 통해, 익스프레스 프레스와 연감 담당부서 익스프레스리 유어스(Expressly-Yours)는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 업계의 새로운 첨단 기술 덕분에, 이 회사의 인쇄 방법은 실제로 액상 잉크를 사용하는 오프셋 인쇄 방식이다. 휴렛팩커드 인디고는 전통적인 오프셋처럼 블랭킷에 잉크가 전달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

연감 외에도, 하드커버 사진집 역시 디지털 인쇄 덕분에 성공한 분야이다. 결혼 앨범, 아기 사진집, 휴가 기념사진 같은 고객 주문형 하드커버 사진집을 생산하는 휴렛팩커드의 셔터플라이(Shutterfly)를 포함해 몇몇 사진집들이 틈새시장에 진출하였다. 현재 5사이즈로 제공되는 고객 사진집들은 다양한 커버 옵션이 가능하다. 그 외 하드커버 사진집 웹 사이트로는 애플 아이포토(Apple iPhoto), 코닥 이지쉐어 갤러리(Kodak EasyShare Gallery), 스냅피쉬(Snapfish) 등이 있다.

또한 [www.picaboo.com](http://www.picaboo.com), [www.myphotobookcreator.com](http://www.myphotobookcreator.com)을 포함해, 개인 하드커버 사진집을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있다.

사진집은 뒤늦게 시작되었지만 성장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스냅피쉬(Snapfish)의 실행 파트너들은 HP의 일렉트로잉크(ElectroInk) 기술을 이용하는 HP 인디고 5500s로 사진집을 인쇄한다. 일렉트로잉크는 첨단 기술 인쇄와 액상 잉크의 품질이 결합된 액상 잉크이다.

제본 장비 제조업체 On Demand Machinery (ODM)의 존 제이콥슨 주니어(John Jacobson, Jr.)는 디지털 시장 덕분에 사진집 판매가 급속히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지금은 30달러로 하드커버 사진집을 만들 수 있지요. 예전 같으면 몇 백 달러가 들었을 겁니다. 사진집은 광고나 엄청난 노동력 없이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사진집이나 연감을 제외하더라도, 디지털 인쇄는 다른 하드커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작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책을 쉽게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프셋 인쇄의 하드커버 도서들에 비해, 디지털 종이 제품은 제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오프셋 인쇄가 디지털 제품보다 덜 낡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심판관이 되다

사진집이나 연감을 제외하더라도, 디지털 인쇄는 다른 하드커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새로운 작가들이 적은 비용으로 책을 쉽게 출판할 수 있게 되었고, 신설 출판사들이 하드커버의 요리책, 지침서, 시집 등을 출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프셋 인쇄의 하드커버 도서들에 비해, 디지털 종이 제품은 제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오프셋 인쇄가 디지털 제품보다 덜 낡는 경향이 있다.

오프셋 인쇄는 양이 많은 상업 인쇄에서 여전히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디지털 인쇄는 오프셋 인쇄의 비용 및 장점에 좀 더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오프셋 인쇄가 생산할 수 있는 하드커버 도서의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 다양한 인쇄 재료와 더 저렴한 비용. 통상적으로, 추가 인쇄비용은 최소이지만, 반대로 사용되지 않고 남겨져 창고에 쌓여있는 하드커버 도서들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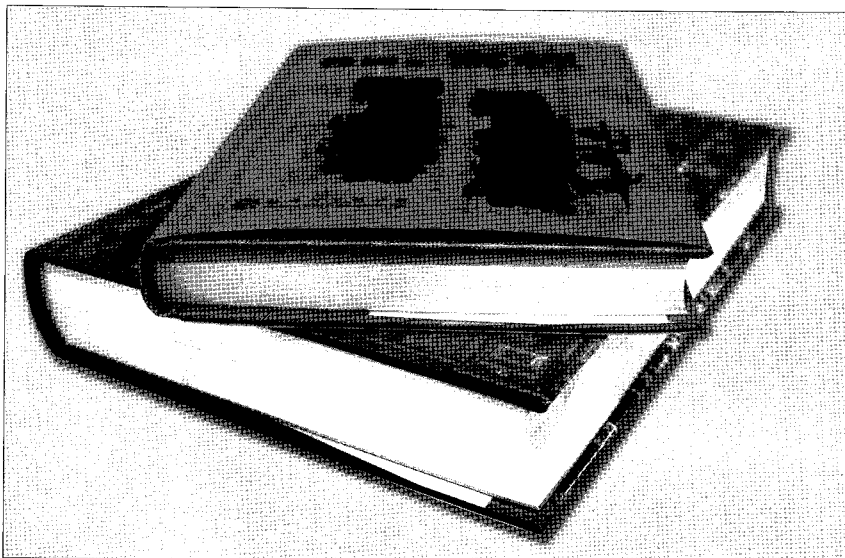
액크미 북바인딩(Acme Bookbinding) 사장 폴 파리스(Paul Parisi)는 “그것이 바로 생산 품질을 높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0권의 책을 오프셋으로 인쇄한다면, 그 책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에 따라 인쇄를 더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

“먼저 디지털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본이 필요할 때 오프셋으로 한다.”

액크미 북바인딩(Acme Bookbinding)은 모든 단기 운전 및 단일 사본 제본에 메카트로닉 울트라바인드(Mekatronics Ultrabind) 장비를 사용한다. 폴 파리시는 “울트라바인드(Ultrabind)는 모든 사이즈의 단일 사본을 하나씩 처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조각자의 지식이나 조정이 필요 없는 완전 자체 조정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 회사는 최근에 세 번째 울트라바인드를 구매하였는데, 처음에 구입한 18년이나 된 기계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폴 파리시는 “이 기계는 신통하게도 잘 돌아갑니다”라고 그 장비의 품질을 설명하였다.

#### 실제 활용

Lulu.com의 짝인 보더스(Borders)는 최근에 개인 출판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이 아이디어는 고객에게 주문식의 개인 하드커버 서적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더스는 미시간 주 앤아버(Ann Arbor)의 디지털 센터에 있는 최초의 컨셉 스토어(concept store)에서 쌍방향 키오스크(가판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공개하였다. 이 템플릿 옵션은 폴 옵션의 Lulu.com 카탈로그에 비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완성하는 대신 실제 상점에서 책을 만들고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한



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오픈할 예정인 13개의 추가 컨셉트 스토어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매장들은 개인 출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 서적 출판 방법도 제공할 것이다.

Lulu.com의 최고경영자 밥 영(Bob Young)은 매주 보더스를 방문하는 수천 명의 작가들과 독자들이 그들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지금은 개인 출판 프로그램 덕분에 그들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제본 장비 제조업체 ODM(On Demand Machinery)은 주문식 디지털 산업을 위해 도서의 하드커버 제본 및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지침서를 출판하였다. 팜플릿에서, 이 회사는 단일 사본의 하드커버 도서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어콥슨은 “디지털 인쇄는 기존에는 없었던 기회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커버 도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디지털 인쇄가 하드커버 시장에서 오프셋 인쇄를 제거할 지도 모른다며 디지털은 이제 더 저렴해졌고 사람들은 디지털의 이점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제어콥슨은 오프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를, 음반 소매점으로 1위였던 월마트(Wal-Mart)의 자리를 애플

아이튠스(Apple iTunes)가 빼앗고 있는 것에 비유하였다. 애플사의 통계를 보면 아이튠스(iTunes)는 아이포드(iPod)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라인의 인기에 힘입어 2003년 출시 후 40억 트랙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이것이 디지털 혁명 사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은 도서 차례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면적인 디지털 인쇄 세상이라는 그의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프셋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낀다. “오프셋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디지털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라디오를 듣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극장에 갑니다. 오프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는 시장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 되겠죠. 해리 포터(Harry Potter)를 디지털로 인쇄하려 하지 않겠죠. 만약 많은 양을 인쇄하고자 한다면, 오프셋으로 인쇄하겠죠.”

#### 하드커버와 팟캐스트(Podcasts)의 맞바꿈

작가 스캇 시글러(Scott Sigler)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소설을 \*팟캐스트(Podcasts)하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작업을 바꿔야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첫 하드커버 서적 인펙티드(Infected)를 출판하였다.

“저는 항상 하드커버로 출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트리플 에이(Triple-A)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고 싶은 것과 같아요. 너무나 흥분됩니다”라고 시글러는 말했다.

크라운 출판 그룹(Crown Publishing Group)의 랜덤 하우스 출판부서(division of Random House Publishers)는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5일 동안 무료 PDF 파일을 만들어 책을 홍보하였다. 일단 책 판매가 시작되자 무료 다운로드의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다.

왜 인펙티드(Infected)는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지 않았는가? 시글러의 편집자 줄리안 파비아(Julian Pavia)는 전자책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교적 소규모이고, 독자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인쇄된 책을 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능한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싶다면, 인펙티드(Infected)가 그랬듯이, 서적을 출판하십시오. 전자책은 옵션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책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본된 책을 손에 쥐었을 때 활용할 수 없는 큰 만족감을 주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로 PDF 페이지를 인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책을 읽는 기쁨과는 다르죠.”

시글러는 자신의 책에 더 많은 내용을 실어 독자들이 오디오로 듣는 것과는 달리 대번에 전체 스토리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고 말했다. 독자들은 완벽한 효과를 얻

오프셋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디지털도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라디오를 듣고, 극장에 갑니다. 오프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는 시장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그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 되겠죠. 해리 포터(Harry Potter)를 디지털로 인쇄하려 하지 않겠죠. 만약 많은 양을 인쇄하고자 한다면, 오프셋으로 인쇄하겠죠.

기 위해 팟캐스트로 듣는 것에 추가로 인쇄된 책을 살 수도 있다. 하드커버 도서는 또한 팬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를 기념 서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한다.

인펙티드(Infected)는 처음 100시간 만에 4만5천 회 다운로드되었다. 크라운 출판사는 경험에 관한 ‘온라인상의 수많은 댓글’ 들을 보았다. 인펙티드(Infected)의 판매량은 대단했고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책의 프리버전은 광고 효과를 창출하였고 독자들을 유혹하였다. 이것이 바로 출판사가 원하는 것이다.

크라운 출판사는 책을 홍보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인펙티드(Infected)는 혁신적인 홍보의 좋은 예이다. 시글러의 팟캐스팅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이 회사가 특별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수한 새로운 온라인 시장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비슷한 커뮤니티를 통해 크라운사로 접근하려는 많은 다른 작가들도 있다.

팟캐스트(podcast)란 Personal On Demand broad CAST의 줄임말로, 주로 MP3와 같은 압축된 형태의 미디어 파일을 사용하여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녹음해 인터넷에서 개인 오디오 플레이어로 다운받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_ 말린다 마르티네스(Malinda Martines)

번역\_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